

### “광주·전남 후보경선 예정대로”

#### 민주당 ‘최고위’ 연석회의 밝혀 경기도지사 일정만 잠정 연기

6·2 지방선거 광주·전남지역 민주당 후보 경선은 일단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30일 오전 최고위원회와 전국 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를 갖고 천안함 침몰사고에 따른 국민정서를 감안, 경선 일정을 논의했으나 4월4일로 예정된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만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회의 직후 이상호 대변인은 이같이 밝히고 “대략 1주일 정도 잠정 연기하기로 하고, 구체적 장소와 일정은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며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경선문제는 각 시·도당이 상황에 따라 알아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고 밝혔다.

우 대변인은 또 “4월10일 예정인 광주 시장 경선과 4월17일 전남도지사 경선은 일단 예정대로 하되 향후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또 임박한 광주 동구청장 경선(4월3일) 일정 연기를 검토했으나 선관위 위탁관리 문제가 있어 애초 일정대로 진행하며 선거인단 수를 지금의 2배인 700여명으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중앙당 최고위 관계자는 “서해 초계함 침몰사고로 충격에 빠져 있는 국민정서를 감안해 4일 예정된 경기도당 경선을 전격 연기하기로 했다”며 “이후 광주시장 경선 일정 등은 상황을 봐가면서 유연하게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여론조사, 공천 반영 한다니까...

#### 미사용 전화 2천대 재개통 지인에게 착신

#### “돈 받고 지지율 조작했다” 인터넷에 유포

6·2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 후보 공천에 여론조사 결과를 크게 반영하기로 함에 따라 여론 조작을 시도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전주지검은 30일 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여론조사를 조작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는 일반전화 수천여 대를 재개통해 착신을 돌려놓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안모(51)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최근 관내 유권자 중 가입하지 등으로 사용하지 않은 일반전화 1대당 설치비 8천원과 착신전화요금 1천원 등을 주고 살리는 등 모두 2천여 대의 전화를 재개통해 지인들의 휴대전화로 착신을 돌려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안씨가 다음달 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현재 완주군수의 여론조사를 유리하게 조작하려고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안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달아났으며 검찰은 특정 정당의 경선이 당선으로 연결되는 지역 특성상 사안이 중대하다 판단,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

경기도 파주경찰은 파주시장 예비후보들의 홈페이지에 최근 지역 주간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조작됐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30일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누군가 지난 26일 오전 6.2 지방선거에서 파주시장으로 출마하는 한나

라당과 민주당 예비후보 4명의 홈페이지에 ‘00후보께 사과 말씀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가 조작됐음을 주장했다.

글을 올린 사람은 자신을 지역 주간지의 의뢰를 받아 최근 파주시장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도 여론조사를 한 여론조사기관에서 일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지역 주간지 대표가) 여론조사 중에 야식비라고 300만원을 줬 다음날 돌려줬는데, 보도된 내용을 보니 실제 조사내용보다 현 시장의 지지율이 10% 올라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해당 주간지 대표는 “양심선언한 인물은 ‘조작된 인물’로 해당 여론조사기관에 근무하지 않을 뿐 아니라 야식비 300만원을 줬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글을 올린 인물의 신원 파악에 나서서 한편 명예훼손 여부와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남구가 서을 논현동의 PC방에서 가명으로 글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며 “우선 글을 올린 사람의 신원을 확인, 사실 관계를 조사한 뒤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지역 주간지는 지난 20일 파주시민 1천5명을 대상으로 각 파주시장 예비후보의 지지도에 대한 여론조사결과를 1~5면에 보도했다.

/연합뉴스

### ■ 지방선거 핫코너



2010시즌 프로야구 광주 개막전이 열린 30일, 무등경기장 야구장 입구에서 한 지방선거 입후보자가 명함을 나눠주고 있다. 이날 무등경기장에는 10여명의 지방선거 입후보자들이 달려와 야구도 보며 지지율 호소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이용섭 “고용영향평가제 의무화 해야”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30일 “광주 지역 고용 사정이 매우 심각한 만큼 광주시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사업에 대해 고용영향평가 제도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기업 유치 과정에서 사전 고용영향평가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 경우에 시에서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평가 결과에 따라 시·군·구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윤남실 “구간 경계 조정 미뤄선 안돼”

윤남실 진보신당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30일 “전면적인 광주시 구간(區間) 경계 조정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윤 예비후보는 “광주 균형 발전을 위해 구간 경계 조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구간 경계조정이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밥그릇 지키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균형발전과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구간 경계 조정 협의회를 가동,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대식 “순천만 개발 국비지원 최선”

김대식 한나라당 전남도지사 예비후보는 30일 “정부가 세계 5대 연안습지인 순천만 일원에 대해 여수 세계박람회 지원시설구역으로 지정했다”면서 “앞으로 순천만 개발을 위한 국비지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430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순천시 오천동 일원에 건립될 ‘순천만 국제습지센터’의 경우 현재 국비 지원이 기대보다 적게 지원돼 공사진행이 더디다”고 말했다.



#### 김문일 “여수박람회 준비 차질 없어야”

김문일 한나라당 전남지사 예비후보는 30일 “최근 2012 여수세계박람회 대한 감사원의 감사 지적을 전화 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감사결과에서 지적된 문제를 총체적으로 재검토해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급하게 조정해 박람회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여수 박람회를 통해 전남 뿐 아니라 남해안 지역 전체가 신 해양산업의 메카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영호 “어린이 전용도서관 대폭 확충”

최영호 민주당 남구청장 예비후보는 “남구에 어린이 전용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을 대폭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최 예비후보는 “이미 광산구와 서구에는 어린이 전용도서관이 개관했다”면서 “남구가 학교 96개소를 포함, 학습관련 기관만 653개가 있는 교육 대표 자치구인 만큼 교육 특구 예상지역을 대상으로 어린이 전용도서관을 세울 것”이라고 공약했다. 최 후보는 특히 “어린이들의 북 스타트(book start) 운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거점도서관과 함께 걸어서 10분이면 갈 수 있는 작은 규모의 도서관이 많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정재훈 “종합건강관리시스템 구축”

정재훈 민주당 남구청장 예비후보는 30일 “건강증진-질병예방-조기검진-질병치료-재활-요양에 이르는 건강의 전 과정의 관리를 통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예비후보는 “보건소 내에 ‘건강증진 센터’를 개설해 각 분야의 전문의 로테이션 배치 속에 건강 상담소를 운영하고, 학교 및 사업체를 중심으로 식생활개선, 금연, 절주 캠페인을 활발히 전개하겠다”면서 “특히 이동보건소 운영을 통해 종합건강관리 시스템(Total Health-Care System)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 정용화 “노인 일자리 창출 최우선”

정용화 한나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30일 오전 광주공원교회 내에 있는 ‘효사랑 복지문화센터’를 찾아 국민 노인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하며 노인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정 후보는 이 자리에서 “살아서 광주를 만들기 위해선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젊은이들이 외지로 나가지 않고도 고향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만드는 데 노력할 것”이라며 “특히 노인 일자리 창출에 광주 시정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 장원섭 “모든 후보에 방송토론회 기회를”

장원섭 민노당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30일 “비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방송토론회도 개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후보는 “방송토론회는 후보들이 공개적으로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고 상호간 검증할 수 있는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에 기여하는 중요한 기회”라며 “이런 방송토론회의 기회가 민주당 후보들에게만 주어진다 것은 비 민주당 후보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박준영 “맞춤형 노인의료복지체계 구축”

박준영 민주당 전남도지사 예비후보는 30일 “고령화 속도가 전국의 2배인 전남의 현실을 감안해 찾아가는 맞춤형 노인 의료복지 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를 위해 ▲관절염 이동검진 센터 운영 ▲IT 융합 운동기기 도내 295개 읍·면·동 보급 ▲도내 400개 마을회관 및 경로당에 문화교실 및 한방진료, 재활 레크레이션 등의 프로그램 운영 ▲도내 먼 단위 공공목욕탕 55곳 신설 ▲노인건강 체육시설 건립 등을 약속했다. 한편, 박 예비후보는 1일 오후 2시 목포 하당에서 예비후보 사무실 개소식을 열고 경선 필수를 다짐할 계획이다.



#### 김충식 “해남군수 재선 도전”

김충식 해남군수가 30일 재선 도전을 선언했다. 김 군수는 30일 민주당 해남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지금까지의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해남군이 대한민국의 중심도시로, 세계 속의 명품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지난 2년은 너무 짧은 8만 군민의 더 큰 행복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그동안 해남군이 도약할 수 있는 탄탄한 준비를 마친 만큼 실현 불가능한 공약보다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내실있는 알찬 공정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kwangju.co.kr

**국민의 힘으로 큰일을 성취하자**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국민들의 힘으로 큰일을 성취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국민들의 힘으로 더 큰일을 성취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국민들의 힘으로 큰일을 성취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국민들의 힘으로 더 큰일을 성취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국민들의 힘으로 큰일을 성취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국민들의 힘으로 더 큰일을 성취하겠습니다.